

05 슈퍼 히어로의 집합소, 마블 스튜디오
A legion of superheroes,
Marvel Studios

08 우수 외국인 직원 Global Talent Program
Global Talent Program for
excellent foreign employees

10 예쁜 척 하지 않아 더 예쁜 개그우먼, 장도연
Comedian Jang Do-yeon: She is even prettier
because she doesn't pretend to be pretty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홍보실 | 주소 110-793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http://news.hdec.kr

싱가포르의 桑田碧海 (상전벽해) 현장을 가다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는 바다를 메워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토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투아스 지역은 '상전벽해'라 할 정도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53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아파트 10층 1개 동 규모의 대형 케이슨 91함을 제작해 바다를 매립할 계획이다. 현재 현장의 공정률은 35%로, 준공 예정일은 2019년 1월이다. ▶ 관련기사 6, 7면

Tuas Finger One reclamation project in Singapore

The Tuas Finger One project was designed to reclaim land from the sea, about two-thirds of the size of Yeouido in Seoul. Tuas, an industrial zone in the western part of Singapore, is going through a dramatic change. Hyundai E&C will construct 91 caissons, one of which is as big as a 10-storey apartment building, in 53 months. Currently, 35 percent of the construction has been completed. Hyundai E&C plans to finish the construction in January 2019. ▶ Continued on page 6 and 7



현대건설, 해외 매출 확대 ... 2016년 실적 성장세

1분기 매출 4조2879억원(8.7%↑), 영업이익 2072억원(3.3%↑) 달성

현대건설이 2016년에도 호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7일 2016년 1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4조 2879억원, 영업이익 207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8.7%, 영업이익 3.3%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해외 부문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가장 두드러졌다.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공장 공사, UAE 사브(SARB) 해상원유처리시설 공사, 현대케미칼 MX(Mixed Xylene) Project 공사 등 국내외 대형 공사에서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국내외 사업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영업이익 역시 상승했다. 특히 해외 대형 현장의 크레임 타결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 주효했다.

현대건설은 수주에 있어서도 성장세가 눈에 띈다. 올 1분기 쿠웨이트 알주르 LNG 터미널 공사, 고양 삼승오피스텔 공사 등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한 5조 2025억원을 기록했다. 수주 잔고도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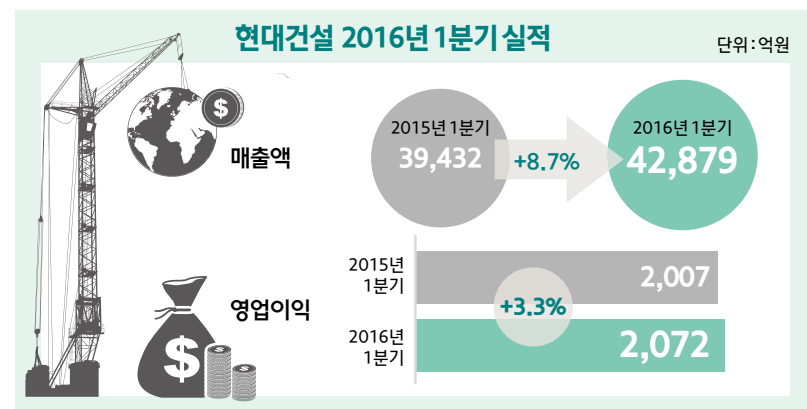
결 기준으로 1분기 말 67조 6717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유동비율은 전년 말보다 2.4%p 증가한 169.5%, 부채비율은 전년 말보다 4.4%p 개선된 155.3%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별도 기준 미수 채권은 지난해 대비 221억원이 감소한 3조 5261억원, 미청구 공사는 전년말 대비 763억원이 감소해 2조 504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현금흐름도 740억원이 개선, 실질적으로 1000억원

이상(토지대 선금금 제외)이 창출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통상 1분기는 건설 비수기지만 해외 사업에서 수익성 개선과 지속적인 원가율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어 호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양적 성장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올해 연결 기준으로 연간 27조 3300억원의 수주와 19조 20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Sales of Hyundai E&C are growing overseas

Hyundai E&C announced on April 27 tentative estimates of its sales record in the three months ended March 31. The consolidated sales and operating profit came to 4,287.9 trillion won and 207.2 billion won, up 8.7 percent and 3.3 percent, respectively,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This increase is attributed largely to the sales growth in the global market and the improvement of earnings. The sales of Korea's primary builder were on the rise thanks to the large-scale projects conducted at home and abroad such as the Puerto La Cruz refinery project in Venezuela, the SARB offshore oil field project in UAE and the Hyundai Chemical mixed xylene project in Korea. The continued effort of the company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the number of local and global projects contributed to boosting its operating profit. Notably, the outfit has considerably improved its business profitability by resolving claims involving overseas construction sites.

On top of this, outstanding bonds of Hyundai E&C decreased by 222.1 billion won to 3,526.1 trillion won from last year, and unclaimed construction receivables dropped by 76.3 billion won to 2,504.8 trillion won compared to the end of last year. The builder practically produced an operating cash flow of over 100 billion won, with the exception of ground rent paid in advance. As of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the company has a consolidated order backlog of 67,671.7 trillion won.

현장·부서소식

구매본부, H Leaders 분과별
간담회 실시

구매본부는 지난 달 6일부터 26일 까지 총 7회에 걸쳐 'H Leaders 분과별 간담회'를 열었다. H Leaders 분과별 간담회는 주요 협력사와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연 2회 본사에서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총 121개 협력사 대표 1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매·외주 관련 당사의 주요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올 하반기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현장 시공 시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PRM사업부, 배관기자재 협력사
품질체인 Training day 행사

PRM사업부 품질혁신실이 4월 15일 우리 회사 기술교육원에서 배관 기자재 협력사를 대상으로 Training day 행사를 가졌다. 우리 회사 품질혁신실과 현대엔지니어링 HSE 혁신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총 23개 배관 제작사가 참여해 ▶도장 ▶건설사업 환경 및 품질 ▶배관 기자재 실패 사례 등 품질 리스크 관리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품질혁신실은 5월 27일과 6월 24일에 각각 기계·TPA(Third Party Agency) 협력사를 대상으로 품질체인 Training Day 행사를 진행하며 오는 10월에는 배관·기계·TPA 협력사의 품질체인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선 도담~영천 제1공구 하괴터널
관통식·안전지원체 열어

중앙선 도담~영천 제1공구 현장은 4월 26일 박석기 현장소장, 윤진원 관리책임자 등 현장관계자와 발주처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괴터널 관통식 및 안전지원체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하괴터널은 도담~영천 철도구간을 최초 관통하는 터널이다. 길이만 2080m에 이르는 이 터널 공사에는 연인원 6000여 명과 점보 드릴 등 중장비 4900여 대가 투입됐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충북 단양에서 경북 영천까지 148km의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우리 회사는 충북 단양~통과 구간인 12.5km의 공사를 맡았다.



경영지원본부, 한마음 단합행사 개최



경영지원본부가 4월 29일 임직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단합대회'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마실길부터 내시묘역길 약 3km 구간의 북한산 둘레길을 함께 걸었다. 산행을 마친 뒤 인근 식당에서 배구공 리시브, 색판 카드 뒤집기, 큰 공 굴리기 등 체육행사로 가졌다. 청군(총무·인사·홍보)과 백군(법무·정보화·기술) 2개 팀은 열띤 응원을 펼쳤다.

한마음 단합행사는 본부의 핵심 가치 중 '소통과 협력' 실천의 일환으로 전사 차원에서 매년 1회 진행하고 있다.

탁월함이 다른 힐스테이트, 올 하반기 정상 노린다

1분기 브랜드 평가서 5위→2위로 꺾충

지난 3일 힐스테이트가 아파트 브랜드 가치 조사에서 순위가 급등하며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 스타크'는 브랜드 평가지수(BSTI)에서 826.8점을 얻으며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 힐스테이트의 평가지수는 5위로 3계단이나 상승했다.

BSTI(Brand Stock Top Index)는 국내 기업 1000여 개를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매기는 평가 모델이다. BSTI 개발사인 브랜드스타크는 연세대 경영연구소와 함께 기업별 브랜드주가지수(70%)·소비자조사지수(30%)를 집계해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광주시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가 지난 3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가구가 마감됐다.

우리 회사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 올 하반기 브랜드 1위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이번 쾌거는

우리 회사가 교육, 안전, 친환경과 관련된 주거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고객 품질경영'을 추진해 온 결



과"라며 "향후 공간 활용도를 높인 특화 설계, 현대차그룹과 연계한 다양한 혜택 등 힐스테이트만의 탁월한 대고객 서비스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는 분양 경쟁력에서도 최고 수준을 입증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은 지난해 전국 최고 평균 청약률 622:1을 기록했으며, 올해 광주 쌍암동의 '힐스테이트 리버파크'는 1순위 청약 결과 810가구에 3만7133명이 몰리며 해당 지역에서 최대 청약건수를 올렸다. '힐스테이트 녹번'은 지난달 22일 100% 예약률을 달성하며 조기 완판됐다.

Hillstate jumps from fifth to second place in a year

Hillstate is changing the dynamics in the apartment market by being ranked no. 2 in a survey on apartment brand value.

According to a brand value evaluation firm Brand Stock on May 3, Hillstate's Brand Stock Top Index

(BSTI) reached 826.8 points out of 1,000 in the first quarter, up three notches to rank the second place. In the same period last year, Hillstate came in fifth place with 790 points.

The BSTI is an evaluation model which assesses the value of about

1,000 domestic leading brands. Brand Stock, the developer of the BSTI, publishes a report on a brand stock index by company (70%) and a consumer stock index (30%) on a quarterly basis in cooperation with the Yonsei Business Research Institute.

Carrying this momentum on, our company is aiming to rank top in the brand value evaluation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Hillstate solidified its position as the best apartment brand in the presale market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제주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보령화력 축조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4월 건축·인프라 분야에서 잇따라 수주 낭보를 전했다. 우



제주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리 회사는 지난달 20일 1539억원 규모(당사분 65.79%)의 제주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계약을 따냈다.

이 공사는 지하 1층~지상 2층, 총 24개 동에 20여 가지의 놀이기구를 갖춘 가족형 테마파크와 쇼핑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15개

월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테마파크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제안서와 지난해 8월 착공한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공사수행경험 등이 사업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수주한 보령화력 제3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연료를 수송하는 선박의 접안과 하역작업을 위한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491억원(당사분 70%)으로 2018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드라마·만화로 기업 이미지 품 'Y콘텐츠' 선택

우리 회사가 드라마와 만화 등을 활용해 현대건설 기업 이미지를 풀어낸 'Y(young)콘텐츠'를 최근 공개했다. Y콘텐츠는 웹드라마 4편, 웹툰 11회의 시리즈물로 어렵고 딱딱한 건설업의 기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난달 말 첫선을 보인 웹드라마 <현대건설 신입사원 성장드라마>는

신입사원 눈높이에서 본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를 유쾌하게 묘사한 것으로, 2016년 신입사원들이 직접 기획·연출·촬영을 맡았다.

네이버 웹툰 <위아더 능력자!>의 작가 손정인(필명 손하기)이 참여한 웹툰 <현이와 건이의 뉴비일기>는 우리 회사의 기업정신·인재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만화로 표현했다.



손정인 작가가 그린 우리 회사 웹툰 캐릭터.

웹툰은 5월부터 9월까지 우리 회사 홈페이지 및 현대차그룹 SNS에 격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그룹사 소식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우수 인재 채용 나서

현대자동차그룹은 8월 21~23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글로벌 톱 탠런트 포럼'을 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오트모터 등 총 4개 회사가 참여해 해외 인재를 선발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션별 최우수 발표자에게 각 3000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발표자에게는 연구장학생 선발 기회와 현대자동차그룹 입사 자격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석·박사 과정 이상이거나 관련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며 6월 30일(한국시간 기준)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hyundai.co.kr/Careers.hub)에서 접수시키면 된다.



현대엔지니어링,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 가스처리시설 기공식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19일 26억6000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성상록 부사장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총리(Mr. Mirziyoev), 루크오일(Lukoil)의 바기트 알렉



페로프 회장, LUOC(국영석유공사 합작회사) 올레그 디아코노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9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칸딤 가스처리시설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520km 떨어진 칸딤 가스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싱가포르 워터타운 쇼핑몰 오픈 현장.

싱가포르 워터타운
쇼핑몰 그랜드 오픈

우리 회사가 시공한 싱가포르 워터타운 쇼핑몰이 4월 20일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김정철 건축사업본부장, 최원호 싱가포르 지사장을 비롯해 에메랄드스타·FC리테일 등 발주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픈식에서 김 본부장은 "20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최고의 품질로 완성된 워터타운은 북동부 풍골 지역의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향후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총공사비 3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이 현장은 3만㎡ 부지에 1~3층 쇼핑몰과 지상 14층 11개동 아파트 992가구를 복합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워터타운 쇼핑몰은 지난해 12월 준공을 마쳤으며 아파트 잔여 공사는 올해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Imagining the Korean Wave's future in Iran

May 02

With Iran opening its door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many cultural experts see this opportunity as the perfect time to seek ways to incorporate the Iranian perspective into producing creative content, and to spread content popular elsewhere in the world to Iran.

Korean culture, especially traditional style, isn't so foreign to many Iranians, as two Korean period dramas - "Jewel in the Palace" (2003-04) and "Jumong" (2006-07) - were big hits there, "Jewel in the Palace," which featured all different types of elaborate royal court dishes, achieved a viewership rating of 86 percent in Iran when it was aired there on weekends in 2006 and 2007,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aid at the time.

The Korean Embassy in Iran even hosted a "Korean Cultural Week" with the theme of Korean food in 2014 to let local fans enjoy the dishes they had seen on TV at home. Given that Iran has not yet



begun importing many other forms of Korean cultural content, such as K-pop music, movies, literature and other dramas, experts say it might be smart to ease Iranians into Korean culture by presenting more of what they are already familiar with, such as Korean period dramas.

"Iran has shown its respect for traditional culture," said Sun Seung-hye, director of the cultural cooperation division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dding that spreading the word on Korea's traditional culture might be a good first step toward further cultural exchange in the future.

To expedite such plans, both countries sat down for the fourth Korea-Iran Joint Cultural Commission last week. The commission discussed a variety of cultural content ranging from the arts and education to media and sports, and also contemplated ways to promote Korean studies in Iran along with Korean language education. Another approach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s getting the younger generation excited about Korean cultur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ultural cooperation division noted that Iran has a population of 80 million, which is the largest among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Items discussed through the commission will contribute much in instigat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younger generation in each country," the division told the JoongAng Ilbo,

Although "Descendants of the Sun," a recent megahit K-drama that aired simultaneously in Korea and China, is not a historical drama, the Korean media reported that the rights to air the program were purchased in Iran, along with many other countries. And such a show, if received well by the young in Iran, can help make a more diverse range of TV programs that have been proven to be popular outside Korea get a shot at success in Iran.

By KOREA JOONGANG DAILY

이란에서 한류의 미래를 생각하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이란 시장이 개방되면서 문화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를 이란의 시각을 담은 창조적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세계 유명 콘텐츠를 이란에 전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적기로 보고 있다.

시대극 <대장금>(2003~2004년 방영)과 <주몽>(2006~2007년 방영)이 큰 인기를 얻은 이란에서 한국 문화, 특히 한국의 전통문화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정성스러운 궁중음식의 향연을 선보인 <대장금>의 경우 드라마가 방영된 2006년과 2007년에 주말 기준 시청률이 86%에 달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바 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2014년 한식을 주제로 '한국문화주간'을 열어 TV에서 본 음식을 이란 시청자들이 직접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아직 K팝, 영화, 문학, 다른 장르의 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이란에 수입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대극처럼 이란에 이미 친숙한 콘텐츠를 통해 이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선승혜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장은 "이란은 전통문화에 대해 존경을 표해 왔다"며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이 향후 문화교류를 위해 좋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주 양국은 제4차 한국-이란 문화공동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미술·교육·미디어·스포츠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논의하고,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한국학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 정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란 젊은 세대의 관심을 얻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는 8000만 인구의 이란은 중동 최대 국가며,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은 양국 젊은 세대 간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영돼 큰 인기를 모은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시대극은 아니지만 이란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 방영권이 판매됐다고 해당 드라마 측은 전했다. 이런 드라마가 이란 젊은층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해외에서 인기가 검증된 다양한 종류의 TV 프로그램들이 이란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Key expressions

expedite 더 신속히 처리하다

contemplate 고려하다

instigate 부추기다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Comparision 유형



Compare the two pictures.

These pictures have things I use in daily life.

In the left one, there is a pair of sneakers. It has black body and white lace on it.

Also it has All Star mark on it. Actually I have mint color of this model. I wear it when I meet my friends on weekend. It's hard to wear it in office.

In the right one, there is a pair of Red flip-flops. I can wear this one when I walk beside the beach or swimming pool. I also wear this one when I go to grocery store next to my home.

It's easy to wear and it has simple design, but I cannot wear this one in my office or downtown. That's all I can say about these two pictures. Thank you.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Seoul plans to protect old districts

May 11

The days of bulldozing architectural treasures and replacing them with dreary concrete commercial buildings are finally coming to a close, as large-scale redevelopment projects in designated areas within the Seoul City Wall will be made illegal in order to preserve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Monday.

The "2025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Plan" will likely be open to the public by July, and will effectively seal off about 1.1 million square meters (271 acres) within the Seoul City Wall from redevelopment. The new plan will protect 30 percent of the areas formerly designated as redevelopment zones within the Seoul City Wall.

When more than 60 percent of an area contains buildings that are more than 20 years old, the area is designated as a redevelopment zone. Currently, 156 redevelopment projects out of 295 redevelopment zones in the former 2020 plan have been completed.

"Redevelopment in the city after 1970 focused on the complete destruction of certain areas and the expansion of business and commercial facilities, which often destroyed historical sites," said 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

By KOREA JOONGANG DAILY



외국인 직원 Talk/Talk/

Safety is everyone's responsibility



Trevor George Cardigan
(HSE Lead Engineer in the
Keells city Project,
Sri Lanka)

Q Could you briefly tell us about yourself?

I started my career with Hyundai E&C in October 2013 as HSE Manager for the New Terminal 3 project in Jakarta before being transferred to my current role as Site Coordinator for the Keells city project

in Colombo, Sri Lanka.

Q What made you join Hyundai E&C?

Having worked in construction for well over 20 years, it was impossible not to come across the name Hyundai. Everyone I talked with about Hyundai E&C before joining it, spoke of the company with respect, and the message that I received particularly about the dedication of the staff made me want to join the company. Since joining, I think there is another factor as important as dedica-

tion and that is the team spirit that exists within Hyundai E&C.

Q What usually do you do when you miss your family? Do you often go to your country to see your family?

I skype most evenings with my wife and family, but I am lucky enough to have a good leave cycle so I go home or on holiday frequently. It is difficult working away from home and it puts a strain on relationships. In the west it is seen as important to have the right work/life balance

and I think that there will be a gradual change of the current culture to recognize its importance within Hyundai E&C.

Q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duce safety accident at construction site?

Safety is everyone's responsibility and Hyundai E&C has a system that will ensure that accidents are minimized. I believe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implement and enforce the system at all levels - HSE should be considered as



Trevor and his family

part of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it will help improve progress if done efficiently. Training and communication is critical to its success.

R&D 혁신 스토리

미래의 삶을 바꿀 스마트 건축 기술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1923년 현대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저서 『건축을 향하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와 같은 당시의 기계문명에 열광했다. 때문에 건축 역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계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연 건축도 기계일까? 이 의견에는 이견이 많겠지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건설 기술을 살펴보면 고개가 고덕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글=고호관 <동아시아인스> 기자

필요하면 모습이 바뀐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오늘날의 건축은 실제로 기계와 흡사한 부분이 많다. 창을 내지 않아도 인공조명으로 불을 밝히고, 강제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형태가 꼭 기능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여자하면 모양이 바뀌면 될 일이다. 친구들을 불러서 떠들썩하게 놀고 싶은데 방이 너무 좁다고? 벽이 움직이면 된다. 벽이 뒤로 물러서서 방이 넓어지면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다. 영화라도 보고 싶으면 프로젝터로 한쪽 벽에 영상을 틀면 된다. 몇 가지 기술 덕분에 따로 공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연구팀은 2009년 ‘인터랙티브 월(Interactive Wall)’을 개발했다. 위아래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7개의 벽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초음파 센서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스스로 움직인다. 앞뒤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구부러졌다가 펴지기도 한다. 벽에는 LED가 있어 사람이 가까워지면 밝아지고 멀어지면 어두워진다. 이 벽은 아직 실험에 가깝지만, 앞으로 건물이 사용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엿보게 해준다. 여기에 요즘 한창 연구 중인 감정인식 기술을 적용한다면 사람의 기분에 맞는 공간을 알아서 연출해 줄 수도 있다. 우울한 기분일 때 사람을 포근히 감싸듯이 벽이 자리를 잡고 적당한 조명에 음악까지 틀어준다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가상현실과 3D프린터로 편리하게

앞으로는 건축물만 바뀌는 게 아니라 건물을 체험하거나 짓는 방법도 달라진다. 먼저 집을 살 때를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매물로 나온 집을 찾은 뒤 중개업자와 함께 직접 찾아가 집을 확인하고 결정한다. 이 과정이 썩 편리하지는 않

다.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일일이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거리라도 멀면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이 가상 현실(VR)이다. 최근 미국의 부동산중개업체인 할스테드 프로퍼티(Halsted Property)는 ‘삼성 기어’나 ‘오쿨러스 리프트’와 같은 VR기기를 이용한 부동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게 가능해진다면 바쁜 시간을 쪼개 집을 보러 다니느라 발품을 팔 필요가 없다. 아직 공사 중인 집, 심지어 아직 짓지 않은 집도 미리 볼 수 있다.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과 주위 환경을 3D데이터로 만들면 얼마든지 VR로 탐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만은 아니다. 건축가 역시 설계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범한 가정주부도 실내 인테리어를 위해 VR을 활용할 수 있다.

인테리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 3D프린터를 빼놓을 수 없겠다. 3D프린터는 실내건축이나 시공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인테리어에 쓰이는 각종 소품과 가구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성품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개성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해진다. 좀 더 통이 크게 건물 전체를 3D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기업인 윈선(Winsun)은 지난해 3D프린터로 6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3D프린터로 부품을 출력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만든 이 건물의 건설기간은 고

작 6일이었다. 네덜란드의 두스 아키텍츠도 대형 3D프린터를 이용해 운하를 따라 늘어선 채널 하우스(Canal House)를 짓고 있다. 3D프린터의 활용으로 건설업이나 주거 형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지도 모른다. 집 역시 원하는 대로 간편하게 주문하고 살다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소비재로 변모할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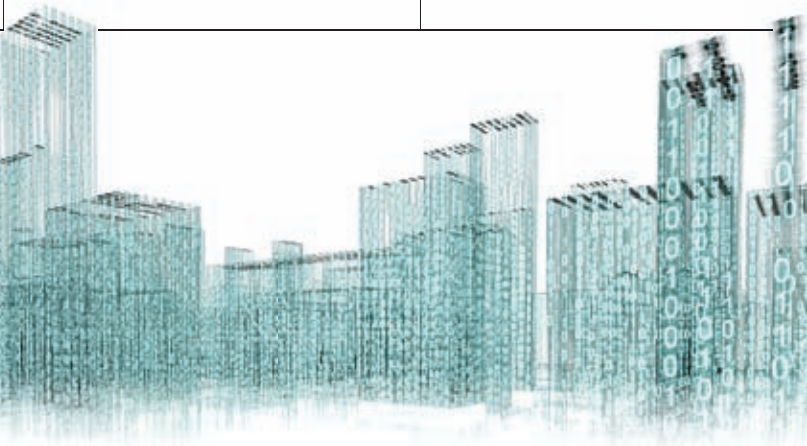
무인 건설현장과 첨단 소재

이번엔 요즘 들어 주목받고 있는 드론으로 시선을 돌려 보자. 스위스 취리히공과대 라파엘로 단드레아 교수는 2011년 드론

3D프린터의 활용으로 건설업이나 주거형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지도 모른다. 집 역시 소비재로 변모할지도 모를 일이다.

을 이용해 벽돌로 탑을 쌓는 과정을 선보였다. 드론 4대가 벽돌 1500개를 쌓아 6m 높이의 건물 모형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아무렇게나 쌓은 게 아니라 건축가가 설계한 600m 건물의 100분의 1 모형을 정확히 만들었다. 날아다니는 드론이 건물을 지을 정도인데, 평범한 로봇이라고 못할 게 없다. 스위스의 건축가와 로봇공학자들이 함께 만든 건설로봇은 센서를 이용해 현장을 돌아다니며 설계대로 벽돌을 쌓는다. 이 로봇을 활용하면 접근이 어려운 공중 같은 위험한 곳에서의 시공이 가능해 안전사고나 건설재해를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를 볼 것이다.

첨단 재료도 건축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할 것이다. 나노기술로 태어날 첨단 소재는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건축물



Zoom In 현대건설 우수 사례 | 싱가포르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현장

드론에서 3D 레이저 스캐너까지, 변화하는 건설 현장

‘부우웅~’ ‘차칫 차칫’. 드릴과 공사 소음으로 가득한 공사 현장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린다. 건설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장의 모습도 스마트하게 변화 중이다. 우리 회사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 시공 중인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프로젝트에는 3D 레이저 스캐너, 드론, 기계화 가설장치 등 생소한 스마트 기기에 대한 기술 실증과 시범적용이 진행 중이다. 2만6300㎡의 대지에 지하 4층부터 지상 30~34층 4개 동을 시공하는 이 프로젝트의 공사금액은 1조 4000억원으로 단일 건축공사로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다. 규모도 규모지만 저층부터 시작되는 유선형 루버가 만들어내는 파도를 연상시키는 곡선의 외관은 눈으로 보기에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러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과 연구개발본부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실증과 시범적용을 시도 중이다. “해외 현장은 국내 건축물보다 형태가 다양하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선형이나 비정형 건물이 많다 보니 현장의 가설이나 좌표관리, 공사관리에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본부와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현장에서는 드론과 3D 레이저 스캐너, 3D 토털스테이션에 대한 기술 실증과 기계화 가설장치 적용 등을 통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연구개발실 조창연 과장의 설명처럼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공 기술은 해외 현장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점차 그 활

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드론으로 매일 공사에 필요한 흙의 양을 체크하고, 현장 상황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고층빌딩의 수직도 체크 역시 가능하다. 또한 공장에서 제작 중인 비정형 자재를 스캔해 현장의 좌표와 연동하면 품질관리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현장에서 한 직원이 3D 토털스테이션을 활용해 공사 진행상황을 측정 중이다.

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높은 인장력과 전기 전도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첨단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와 콘크리트의 복합물질은 철근 콘크리트보다 가벼우면서도 더 단단하다. 여기에 초발수성 물질로 코팅한 건물은 빗물과 이슬에 젖지 않아 부식을 방지한다. 2010년 노벨물리학상의 주인공인 그래핀(Graphene)도 건축에 활용할 수 있다. 탄소 원자로 만들어진 얇은 종이와 같은 물질인 그래핀은 유연하면서도 튼튼하고 전기까지 통한다. 벽 대신에 그래핀을 건물의 ‘피부’처럼 두른다면 어떨까. 튼튼한 피부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도 필요에 따라 모양을 바꾸거나 디스플레이로 작동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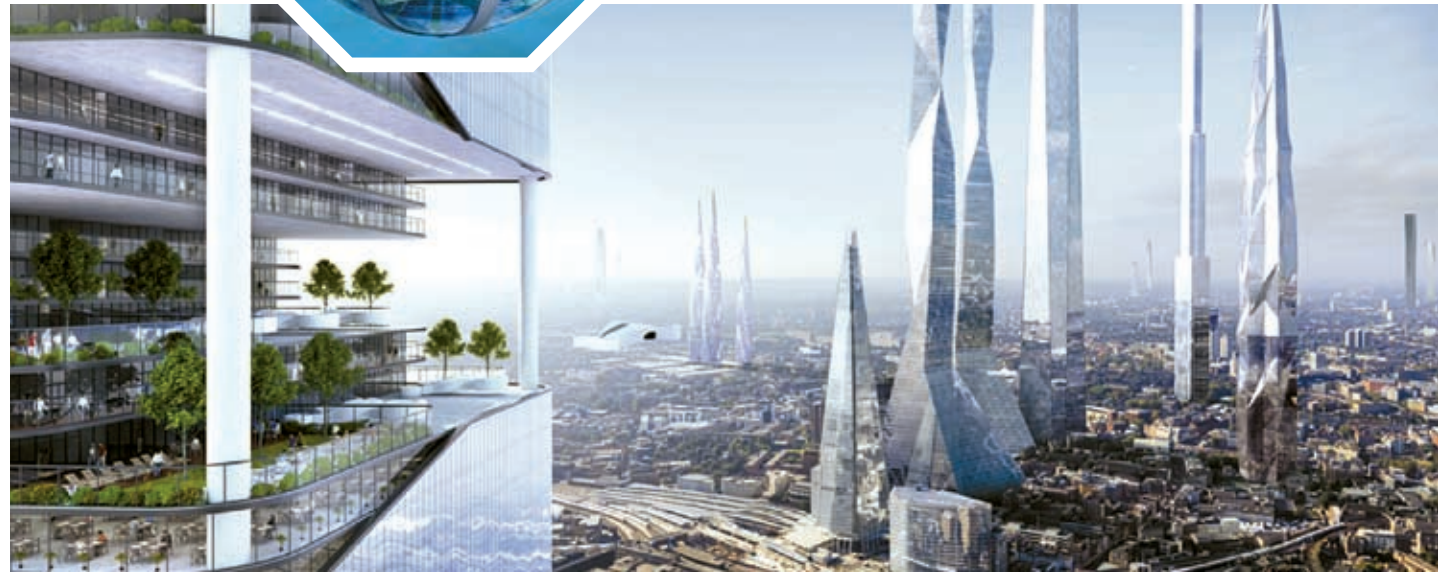
지구를 떠난 건축

마지막으로 아예 더 먼 미래로 가 보자. 지구의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삶의 터전을 먼 곳으로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 그중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바닷속이다. 벨기에의 생태건축가인 빈센트 칼보는 해파리를 닮은 해저도시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바다 쓰레기와 3D프린터로 거대 도시를

만든다는 이 아이디어에 이어 일본의 시미즈건설도 해저 3000~4000m에 미래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과 해저광물 채굴, 양식업 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는 야심찬 생각이다. 한편 우주에 나가 사는 것도 생각해 볼직하다. 매년 엄청난 연료를 소모하는 로켓을 이용하는 건 비효율적이지 우주까지 이어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앞서 언급한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해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3만6000km까지 이어진 이 엘리베이터가 건설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건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기술은 현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질을 재료로 활용하거나 3D프린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또 어떤 신기한 기술로 상상을 뛰어넘는 건물이 완성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우주에 떠다니는 집에서 인공지능 집사를 두고 사는 우리의 후손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면 유치하다고 웃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진 제공: 삼성전자 뉴스룸]



글로벌 기업 경영 트렌드

‘슈퍼 히어로’ 르네상스...
마블은 어떻게 대중을 사로잡았나

4월 27일 개봉한 <영화 캡틴아메리카: 시빌 워>가 올해 첫 1000만 영화 기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초인등록법을 둘러싼 캡틴 아메리카팀과 아이언맨팀의 치열한 격돌을 그렸다.

마블을 구한 ‘B급’ 히어로

‘크로스오버 무비(crossover movie)’ 대표 주자인 마블 스튜디오는 70년간 수 천여 개 캐릭터를 선보이며 미국 만화산업을 지배해 왔다. 크로스오버 무비는 서로 다른 작품에 공통분모를 만들어 하나의 세계로 엮는 것이다. 이 전략은 위기 때 통했다. 1990년대 이후 출판만화 시장이 위축되고 난 이후 마블은 보유하고 있는 스파이더맨·엑스맨 등의 캐릭터를 폭스·소니 등의 영화사에 라이선싱해 주면서 매출을 올렸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위기의 마블을 구한 ‘히어로’는 마블이 수십 년간 만화책을 내면서 쌓아둔 캐릭터였다. 물론 A급은 아니었지만 주요 인물 숫자만 해도 9000여 개, 주변 인물까지 포함하면 1만 개가 넘었다. 마블의 캐릭터는 그들만으로도 이야깃거리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마블은 기존 캐릭터의 다양한 조합을 기반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를 오픈했다. 영화 속 캐릭터·줄거리·설정·캐스팅 등을 공유하는 가상의 세계관을 선보였다. 지난 작품과 연관성을 보여주는 요소, 다음 작품에 대한 복선을 찾는 즐거움도 관객 몫으로 남겼다. 마블은 다른 캐릭터에 비해 지

명도가 떨어졌던 <아이언맨>을 영화 속에서 실감나게 그려내면서 관객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35억 달러(약 4조원)의 수익을 거두며 <스타워즈>를 제치고 할리우드 간판 제작사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자원을 황금알로 바꾼 R&D

마블은 신사업 진출 대신 기존의 자원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재창조하는 데 힘을 모았다. 신규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크게 줄이면서 정체된 주력 시장과 활력이 떨어진 조직문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다. 마블의 핵심 R&D로 꼽히는 ‘크리에이티브 위윈회’는 마블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CEO부터 만화가까지 총 6인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위윈회는 기존 마블의 다양한 캐릭터의 색깔과 분위기를 일치시켜 나갔다. 당시 캐릭터 가물에 시달리던 디즈니사는 2009년 40억 달러에 마블을 인수하면서도 영화 제작 시스템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

마블의 ‘R&D’는 기존의 슈퍼히어로 이야기관을 뒤집으며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이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는 슈

퍼히어로 영화를 짜임새 있는 정치 스타일로 풀어내 마블 영화의 <다크 나이트>라는 평가를 받는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우주를 무대로 한 유쾌한 스페이스 오페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줬다. 최근 개봉한 <시빌 워>는 선과 악이란 구도 자체를 비틀었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두 캐릭터가 자신의 신념과 철학으로 인해 싸운다. 그 바탕에는 각자의 개인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연출을 맡은 루소 형제는 각 캐릭터의 심리 변화를 섬세하게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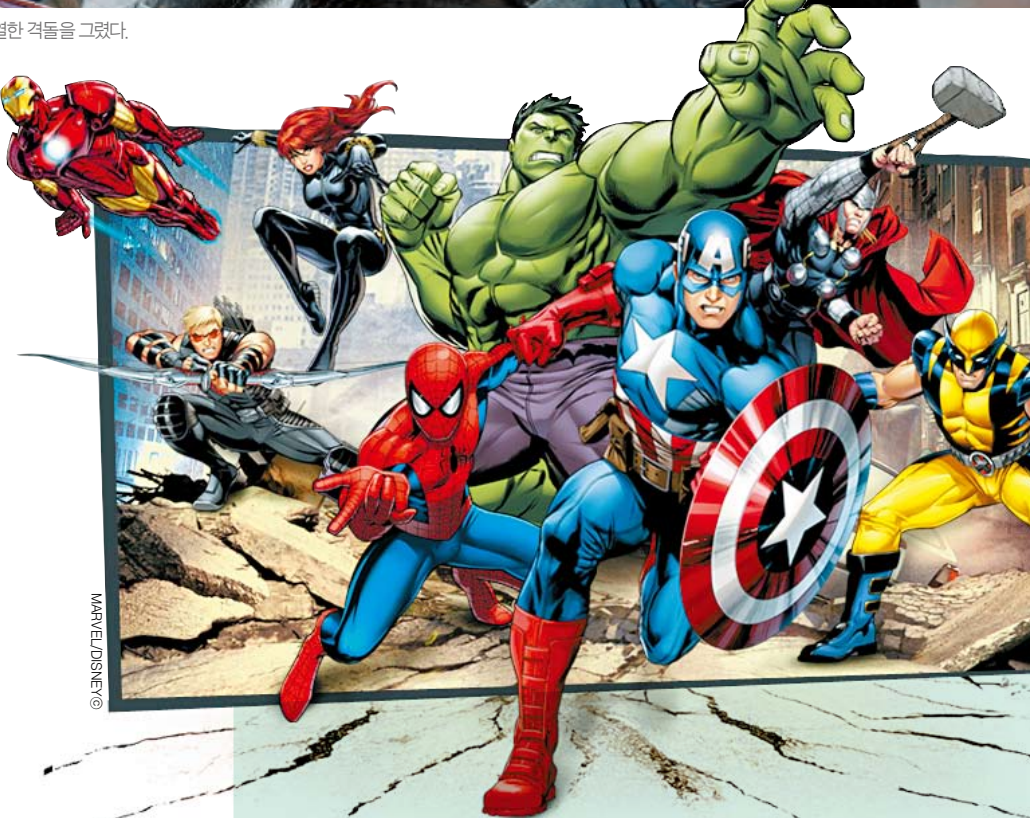
취향저격한 캐릭터 사업 확장

마블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는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이다. 영화, 게임 제작사에 캐릭터 사용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소니를 통해 영화로 만들어진 스파이더맨의 경우 2억5000만 달러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익 중 5%를 마블이 받는다. 여기에 마블은 스파이더맨 관련 캐릭터 상품을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지난해 마블은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와 손을 잡았다. 국내 굴지의 게임 개발업체 스마일게이트와 캐릭터 라이선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마블의 인기 캐릭터가 총출동하는 공상대전액션(AOS)게임 ‘PK 프로젝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같은 해 4월 아모레퍼시픽은 남성 전용 화장품 라인인 라네즈 옴므에 마블의 슈퍼 히어로 캐릭터를 결합한 ‘어벤저스 화장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오일 컨트롤 워터 로션 헬크’ ‘선비비 토르’ 제품은 지난 한 해 아모레퍼시픽 온오프 매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주요 캐릭터를 한눈에 <마블 패밀리>

스파이더맨

본명 피터 벤저민 파커
신장 155cm
직업 과학자, 발명가, 사진가
능력 거미줄 쓰기, 빠른 이동 능력
탄생 어메이징 판타지(1962)

캡틴아메리카

본명 스티븐 스티브 로저스
신장 190cm
직업 미합중국 보안책임자
능력 군사작전 능력, 무술실력, 치유력
탄생 캡틴 아메리카 코믹스(1941)

올버린

본명 제임스 하울렛
신장 161cm
직업 바텐더, 스파이, 군인 등 10가지 이상
능력 듀티드 손톱, 빠른 회복력, 외국어 능통
탄생 인크레더블 헬크 180호(1974)

토르

본명 토르 오딘슨
신장 201cm
직업 천둥의 신
능력 뛰어난 전투기술, 전투용 망치
탄생 미스터리 속으로 여행(1962)

헐크

본명 로버트 브루스 배너
신장 179cm(변신 전)
201cm(헐크) / 244cm(분노했을 때)
직업 핵물리학자, 발명가
능력 막강한 힘, 재생력, 풍부한 과학지식
탄생 인크레더블 헬크 1호(1962)

블랙위도우

신장 170cm
직업 스파이, 운동선수
능력 무술
탄생 트레이터의 대계획 9호(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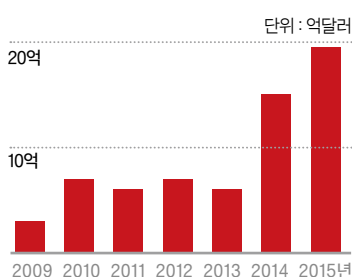
호크아이

본명 클린턴 프랜시스 클린트 바튼
신장 192cm
직업 모험가, 교사
능력 뛰어난 궁술 실력, 높은 시력,
탄생 테일즈 오브 서스펜스 57호(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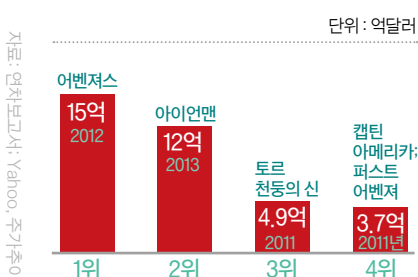
아이언맨

본명 앤소니 애드워드 토니스타크
신장 185cm / 201cm(철갑 착용 시)
직업 기업가, 발명가
능력 기계장치, 발명의 천재
탄생 테일즈 오브 서스펜스(1963)

MARVEL 마블 사업부문 실적영업이익



MARVEL 마블 역대 히어로 영화 매출





1 케이스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전경. 2 제작 완료된 케이스를 플로팅도크로 운반 중인 모습. 3 케이스 선적을 위해 대기 중인 플로팅도크 및 케이스 제작장 전경. 4 케이스 설치 작업 모습. 5 직원들이 현장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있다.

연중기획 | 현장탐방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 바다를 육지로 ... 싱가포르의 지도를 바꾸다

싱가포르 도심에서 승용차로 1시간가량 서쪽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투아스(Tuas) 지역의 넓은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매립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 현장에서 다국적 직원군과 1300여 명과 함께 365일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글=김승희



대형 케이스 91개 함을 건설하는 메가포트 프로젝트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싱가포르 서쪽 끝 푸른빛을 띤 바다 위에 100여 대의 대형 선박과 10여 개의 준설펀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거대한 자연이 탁트인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 현장이다.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는 투아스 지역에 185만㎡에 해당하는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3분의 2에 달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매립한 국토를 메가포트 항만시설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2014년 7월 싱가포르 국영기업 JTC 코퍼레이션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를 삼성물산, 일본의 팬타오션 등과 공동수주한 우리 회사는 지

분 29%를 보유한 주주이다. 전체 공사 금액은 약 7억1621만 달러(당사분 2억 2500만 달러).

투아스 핑거원 공사는 싱가포르 파시트 판장 항만공사를 시작으로 우리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수행하는 네번째 대형 케이스 건설 프로젝트다. 케이스이란 수중 시설물 등 기초 구축용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1개 함은 가로 40m, 세로 28m, 높이 30m, 무게는 최대 1만 8000t에 달한다. 현장은 53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10층 규모 아파트 1채 크기의 대형 케이스 총 91함을 생산해야 한다. 우리 회사가 이전 현장에서 시공한 케이

연구개발본부와 협업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독자개발 건설신기술 현장에 적용... 품질 확보와 공기 단축 효과 거둬

는 335함에 투아스 핑거원 현장의 91함까지 포함하면 싱가포르에서만 총 426개의 대형 케이스 시공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케이스 426함은 총 설치 연장만 해도 1만5310m로, 서울 종로에서 경기도 과천까지 거리에 해당한다. 2위 업체인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로, 우리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케이스 프로젝트의 공사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현장 공사 일정은 숨 돌릴 틈 없이 촉박하게 돌아간다. 현장은 하루에 평균 1300㎡, 1년에 약 50만㎡에 달하는 아아마한 양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케이스를 4월에 1개 함씩 생산한다. 타설 작업을 멈추면 조인트로 인한 품질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은 24시간을 2교대로

나뉘 365일 쉬지 않고 현장을 지킨다. 한 번 공정이 밀리면 도미노같이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게 돼 매서운 바닷바람이 불어도 집중력을 잃어선 안 된다.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등 1300여 명에 달하는 다국적 직원군과 자들을 관리하는 것 또한 현장의 어려움 중 하나다. 안전 직원들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각국의 언어로 작성된 자료를 매일 아침 직원군과 교육하고 있다.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퇴출제도(Safety Penalty)와 포상제도도 철저히 시행 중이다.

현장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돌관공사 일정 속에서도 최근 의미 있는 패기를 올렸다. 투아스 핑거원 현장과 연구개발본부 협업해 개발한 '콘크리트 온도균열 저감 양생공법'을 현장에 최초로 적용한 것. 국내 건설사의 독자가

발 건설 신기술이 해외에 도입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은 케이스 기초에 약 2m 두께의 콘크리트를 한번에 타설해야 해 균열 발생 위험이 컸으나, 신기술 적용으로 균열을 획기적으로 줄여 품질 확보는 물론, 공기 단축 효과까지 거뒀다.

우리 회사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1981년 풀라우 테콩 매립공사부터 시작해 싱가포르 전체 국토의 6%에 해당하는 매립공사를 완공했다. 투아스 핑거원 현장이 성공적으로 준공되면 올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핑거3, 핑거4 등 후속공사 수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매립-항만공사 시장에서 꾸준히 명성을 이어가길 기대해 본다.



Interview

“계급장 떼고 목소리 내는 젊은 직원, 우리 현장의 윤활유죠!”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주인공 데미 무어는 도자기를 정성스레 빚는다. 흙덩어리가 사람 손을 통해 형상을 갖춰지며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은 신기하기만 하다.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 현장의 케이스 제작 과정은 도자기를 빚는 과정과 다른 듯 닮았다. 현장 직원들은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다양한 공법을 사용, 콘크리트를 타설해 케이스를 제작한다. 마치 도자기를 빚는 정인처럼.

해상 전문가들이 뿔쳤다!

이중찬 현장소장(이하 이 소장) 저는 94년부터 싱가포르 장이공항 매립공사를 필두로 국내외 현장에서 주로 해상·항만·준설 분야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국내 6년, 해외에서 19년 동안 한우물만 파고 있죠. 여기 계신 김재홍 차장도 스리랑카·홍콩·두바이 등 5개 현장에서 매립공사를 담당했고, 이주원 차장은 해상공사에만 11년째 근무 중이에요.

김재홍 차장(이하 김 차장) 저를 포함해 여기 모인 소장님 이하 네 명 모두 우리 현장의 적전 케이스 프로젝트인 싱가포르 파시트 판장 터미널 현장을 성공리에 마친 주역들입니다. 노하우와 시공경험이 무엇 보다 큰 자산인 케이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 많다 보니 큰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공정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고병현 부장대우(이하 고 부대) 우리 현장 공정의 핵심은 스텝별로 정확하게 공기에 맞춰 케이스를 제작하는 것인데요. 1년 365일 쉬지 않고 돌관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중요한 공정이 닥칠 때는 직원들이 발설 때가 많아요. 그래도 불평불만없이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감사하죠.

이주원 차장(이하 이 차장) 가끔 지칠 때도 있지만 일이 잘됐을 때는 내는 보람과 뿌듯함이 현장 직원들을 이끄는 긍정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5일 첫 번째 케이스를 전수시켰는데요. 큰 배를 만들어 첫 출항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케이스 제작부터 전수까지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직원들끼리 서로 축하하며 '현대건설의 저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하는 현장

이 소장 우리 현장의 사원, 대리의 비중이 다른 현장에 비해 높아요. 그만큼 주니어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 숙제였죠. 일단 갑갑하나 체육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갖도록 유도하고,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른 후에는 업무 책임감을 높게 부여했어요. 지금은 이 친구들이 공구장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까지 성장했죠. 현장 초기에 주니어 직원들의 역량을 믿고 업무를 추진했던 것이 다른 현장에 비해 콤팩트하고 역동적인 조직이 되는 밑거름이 된 듯 합니다.

조일수 과장(이하 조 과장) 소장님 말씀처럼 현장 분위기가 젊고 활기찬 편이에요. 젊은 직원들이 주저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됐습니다. 안전시설물이 나 근무자 편의시설 등 많은 부분이 사원, 대리가 많이 제안했습니다. 안전시설물이 나 근무자 편의시설 등 많은 부분이 사원, 대리가 많이 제안했습니다.

이 차장 우리 현장은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글로벌 Joint Venture사들과도 소통이 원활한 편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팬타오션 공동도급사 직원들과 축구대회를 가졌는데요. 친목도모가 목적이었지만 한·일전이라는 경기 특성상 우리 회사 직원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전고 첫 출항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케이스 제작부터 전수까지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직원들끼리 서로 축하하며 '현대건설의 저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 과장 가족 얘기가 나오니 28개월된 딸아이가 더욱 생각나네요. 야근이 많아 잠들어 있는 아이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매일 재롱도 보고, 안아주고 싶는데 안타깝죠. 저를 대신해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아내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는 딸아이를 사파리랑 키즈카페에 가서 놀아주는데 목표입니다(웃음).

이 소장 주·야간으로 고생하며 근무하는 우리 현장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우선 전하고 싶어요. 또 본사 사립부, 구매실, 외주실 등 관련 부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지원 덕분에 현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이 중공이니 아직 대장정의 반도 안 지났네요. 세상에서 가장 큰 케이스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항만공사의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현대건설도 기대해 주세요.



이중찬 현장소장, 조일수 과장(케이스파트장), 이주원 차장(해상파트장), 김재홍 차장(공사팀장), 고병현 부장대우(공무팀장) (왼쪽부터).

Hyundai E&C is changing the map of Singapore

Mega port project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91 large caissons

The Tuas Finger One project aims to reclaim 1.85 million square meters of land in Tuas, the western part of Singapore. The land to be reclaimed is equivalent to about two-thirds of the size of Yeouido in Korea. The Singapore government will use the new reclamation land as a mega port facility. JTC corpo-

ration, the state-owned land developer, awarded the 716-million-dollar reclamation project of the Tuas Finger One in July 2014 to the joint venture consisting of Hyundai E&C, Samsung C&T and Japan's Penta Ocean. Our company holds a 29 percent stake worth 225 million dollars.

The Tuas Finger One project is the fourth project for Hyundai E&C

to construct caissons in the country since the reclamation project for Pasir Panjang Terminal. Caissons refer to a large concrete structure used for the foundation in underwater work. A caisson, 28 meters long, 40 meters wide and 30 meters high, weighs as much as 18,000 tons. Our company aims to build 91 caissons, one of which is the size of a 10-storey apartment building, in 53 months. Combined with 335 caissons built by our company for the previous projects, we have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a total of 426 caissons in the city state alone. The total length of 426 caissons reaches 15,310 meters, which is

almost two times longer than that of the second player in the market.

Working around the clock

The land reclamation project places 1,300 cubic meters of concrete on a daily basis on average and approx-



Foreign workers are attending safety training.

imately 500,000 cubic meters of concrete on a yearly basis and produces one caisson in four days. If concrete placement is discontinued, this might lead to failures in construction quality caused by joints in the concrete. Therefore, our employees at the construction site are working a double shift around the clock. They should not lose their concentration because a delay in the process might result in disrupting the entire construction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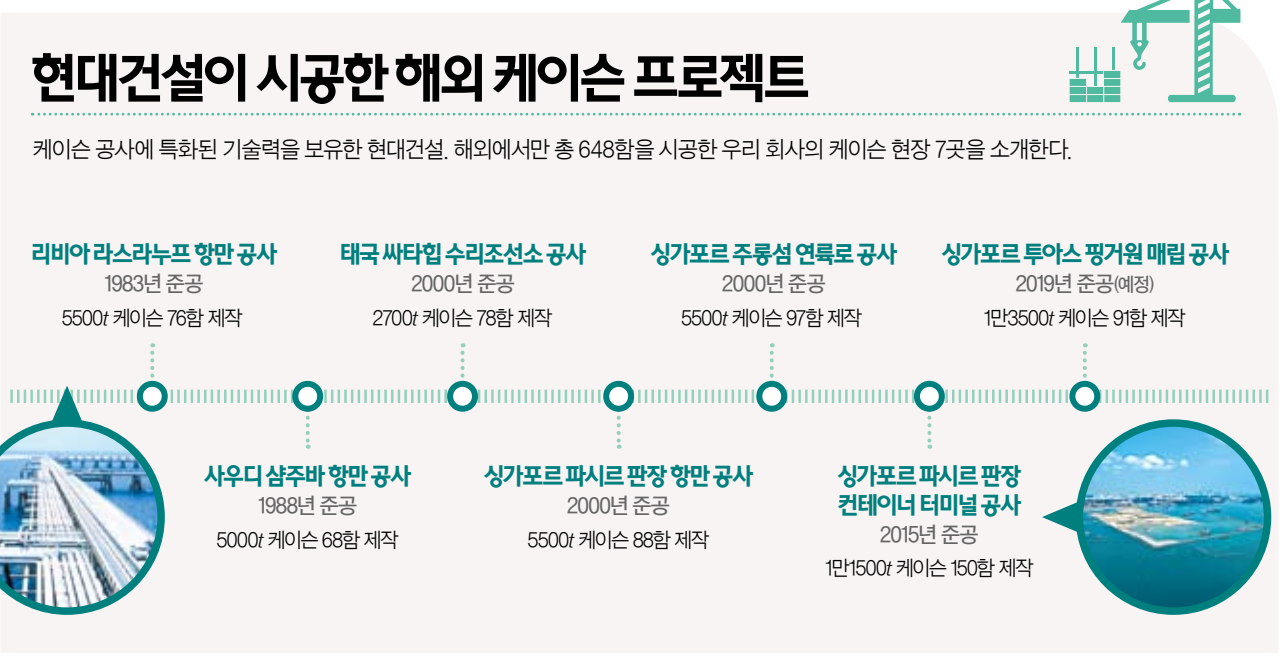
One of difficulties facing the construction site is to manage around 1,300 multinational workers from Bangladesh, India and Sri Lanka. Those in charge of safety are train-

ing outsourcing workers every morning with documents written in their own languages. To establish safety culture, the Tuas Finger One project adopted both a safety penalty system and a reward system.

In addition, our company applied the "curing method for reducing temperature cracks in concrete" developed in cooperation with the Tuas Finger One construction site and our R&D division. This is more meaningful in that this is the first time for a Korean construction company to introduce its own construction technology to overseas projects. The land reclamation project had a potentially high

risk of having concrete cracks as concrete is poured into about two-meter thick caisson foundation at once. However, the new technology can dramatically reduce cracks, securing high quality and further cutting back on the construction period.

Since the Pulau Tekong reclamation project in 1981, our company has successfully reclaimed six percent of the country's area from the sea with our unrivaled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competitiveness. Hyundai E&C is expected to retain its reputation in the reclamation and port construction market in Singapore.





우수 외국인 직원들이 한국민속촌 관람 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1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입소식. 2 정수현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3 본사 투어. 4 연 구개발본부 실험실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우수 외국인 직원, 한국으로 모였다! 4일간의 행복했던 Global Talent Program 이야기

우리 회사가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수 외국인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사보신문>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Global Talent Program'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one, two, three~ smile and kimchi~.”

지난달 25일, 계동 본사 1층 로비에 서 기념사진을 찍는 셔터 소리와 함께 ‘Global Talent Program’의 막이 올랐다. GHR III(Global Human Resources II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우리 회사의 해외 사업 수행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우수 외국인 직원의 역량 향상 및 로열티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47명에 이어 올해 33명의 우수 외국인 직원을 선발해 한국으로 초청했다.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직원들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다양한 해외 현장에서 각양각색의 업무를 맡고 있다. 33명 중에는 본사에서 선발된 인원 3명도 포함됐다.

한국을 보다, 이해하다

첫날 교육은 ▶본사 투어 ▶외국인 직원 인사제도 ▶현대건설 역사 등 회사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본사를 찾은 이들은 지하 1층 Culture Lounge부터 5층 VIP접견실, 미팅룸, 15층 대회의실까지 구석구석을 다녔다. 현대건설 CI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오후에 진행된 입교식에서 정수현 사장은 “현장과 본사에서 우수 외국인 직원으로 뽑힌 여러분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대건설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 달라”며 외국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저녁에는 명동 관광과 난타 공연 관람을 했다. 외국인 직원들은 가족에게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자유롭게 쇼핑하며 명동 거리를 즐겼다. 석식 후에는 <난타> 공연을 관람했다.

2일차 오전에는 현대차그룹 마북 인재개발원에서 ▶현대차그룹 핵심가치와 기업문화 ▶그룹비전 ▶한국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현대차그룹과 한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식사 후 우리나라 전통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한국민속촌을 찾은 외국인 직원은 전문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조선시대 가옥, 관아 등 이곳저곳을 살피며 관광했다. 신명나는 농악 공연

을 관람할 때는 장단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거나 발로 박자를 맞추며 한국 특유의 흥을 즐겼다. 또 줄넘기, 윷놀이, 인절미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도 체험했다. 추억 남기기 또한 잊지 않았다. 이틀 새 전해진 이들은 서로 어울려 다니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현대건설 우수 외국인 직원들의 소중한 추억거리가 또 하나 생기는 순간이었다.

현대차그룹 멤버로서 리더십 up

셋째 날은 ‘세계 속의 기술 현대’를 알리는 데 주요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본부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외국인 직원들은 풍동실험실, 구조실험실 등과 같은 각종 실험실과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를 견학하며 현대건설의 기술력에 연신 엄지손가락을 들었다. 오후에는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둘러봤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매년 30만 대의 중대형 승용차와 60만 대의 엔진 생산이 가능한 곳이다. 외국인 직원들은 프레스 공장, 차체 조립 공장, 엔진·소재 공장 등 글로벌 최첨단 생산설비가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사우디 안부시티 380kV 변전소 공사 현장에서 온 Sunil Asokan 과장은 “차체 조립을 위해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패널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것이 영화 <트랜스포머>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저녁에는 경기도 화성 소재 톨링힐스 호텔에서 ‘Farewell Party(송별 행사)’를 가졌다. 싱가포르 해저 유류 기지 공사 현장에서 HSE 엔지니어로 근무하

고 있는 Agus Sopian Bin Mohamed Ali 사원은 “벌써 마지막 밤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싱가포르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그리울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28일 목요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다. 이날 오전에는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MBO 성과 관리 이해 ▶한국 조직에서의 소통방식 ▶과정 리뷰 및 현업 실행계획 수립 등 강의를 들었다. 점심식사 후에는 1차 귀국자들이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출발 전 이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포옹하며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쌓인 정을 주고받았다. 남은 외국인 직원들은 ▶송도 국제도시 9경 스탬프투어를 한 후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우리 회사는 해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직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매년 우수 외국인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행복한 4일을 보낸 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우수 외국인 직원들이 앞으로 ‘현대건설’이라는 이름 아래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줄넘기, 농악,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

MINI Interview

Question

- 1 The Global Talent Program included tours to a variety of places.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in the program?
- 2 When do you feel proud as a member of Hyundai E&C?
- 3 Do you have something to say to Hyundai E&C's staff in Korea?

Teo Yen Ling Janice
(Singapore Branch Office)

1. The R&D Division was impressive because of the research done to improve construction methods effectively and achieve zero energy living and environment. The Asan Factory was really impressive as well in that I could see how cars are manufactured in the fully automated factory. In terms of the workflow, process and precise

engineering and quality control, everything was perfectly managed.
2. I felt proud when I heard about organizational diversity on the projects which Hyundai E&C have conducted and how Hyundai Motor Group's core values and philosophy link businesses and humans.
3. I am sure that we can feel pride in our work and the company we are in. We are able to learn many things and grow together with Hyundai E&C and need to pass on our experience.

Jeffrey Tamayo Viray
(The Hamad Medical City, Qatar)

1. The Asan factory was impressive because I could understand the entire process and capabilities of our factory not only as a car making company, but also as a group company. The ability to produce a large number of cars in a day made me surprised.
2. Before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I already

felt proud as a member of Hyundai E&C. But I felt more proud when I attended the “Global Talent Program.” I would like to learn more to become a real professional global talent.
3. I would like to tell all my Korean colleagues that being successful as an individual is not enough achievement. We are here as one team to support each other in order to create great harmony and make our company one of the most leading companies in the world.

생각의좌표 청소년을 위한 기적의 도서관

주말에 도서관을 갔다가 이른바 중딩들에게 점령당한 도서관을 배회하다 돌아왔다. 열람실은 물론이고 로비와 복도에도 삼삼오오 짝을 지은 아이들이 몰려 있었다. 복도에 꾸구리고 앉아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는 아이, 로비 책상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 여자 친구와 수줍은 담소를 나누는 아이, 로비 카페의 좌석 역시 중딩들 차지다. 한눈에 봐도 이들은 도

서 도서관은 시험공부를 위해 열람실 책상이 각종 수험 문제지로 덮여도 적당히 넘어가 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도서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독서의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다. 최근에는 공부하는 열람실 자체를 만들지 않는 나루 급진적인 도서관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도서관이 주민들 모두의 찬성 속에 만들어진 것은



도서관의 공간 규칙인 '정숙함'은 절대적인 것인가.

청소년들에게 훈육만 하기보다는

이들을 수용할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 나와야 할 때다.

서관에 공부도 하러 왔지, 공부만 하러 온 건 아닌란 걸 알 수 있다. 그곳은 일종의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를 공식적으로 땀땀하게 만날 수 있는 사교장이자 지난밤 인터넷 게임의 성과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장이다. 로비에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도서관이 마치 10대들의 꿈틀대는 혈기를 시험공부와 도서관의 규칙이라는 이중 포획을 통해 간신히 잡아놓은 장소처럼 보였다. 이들을 본 어른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도대체 왜 애들은 여기서 이라고 있는 거야?

한국 사회에서 도서관의 공간 규칙

교육이란 자고로 앞선 세대의 지식 체계를 전달·전파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

아니라서, 어느 신도시 지역에 지어진 열람실 없는 도서관은 학부모들의 불만에 부라부라 내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저런 최근 도서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규칙이 있으니 도서관에서는 정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떠들지 말 것, 복도에서 뛰지 말 것, 목소리는 최대한 낮출 것." 또한 남녀는 유별해 남·여 열람실은 구분돼 관리된다. 너무나도 당연해 특별히 인식하지도 않아도 자연스레 나오는 위와 같은 행동은 이미 우리 몸을 통해서 규범화되어 하나의 가치를 이룬다. 그러나 어느 주말 도서관, 뛰어다니는 어린 친구들을 향해 호통치는 어른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다 문득 우리

들의 이런 시선, 도서관의 공간 규칙 또는 가치, 다시 말해 정숙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 필요할 때

공부는 원래 개인의 영역에서 행해지지 않았다. 광장에서 토론을 통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는 형식이었다. 이것이 '근대'를 거치면서 개인의 영역으로 포섭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역시 자유로운 광장으로부터 훈육의 공간인 학교로 옮겨갔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간의 규범을 몸에 새기며 문명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심대의 혈기가 공간 규칙과 충돌하는 장면을 바라보며 냉소를

보내기보다는 다른 제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이들에게는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지시한 공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으니, 대학 입학이라는 맹목적인 교육의 목표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들을 수용할 새로운 도서관의 개념이 나와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훈육의 공간을 넘어서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했던 작고 하신 정기용 건축가의 '기적의 도서관'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어간다. 고인은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왔다. 그가 설계한 도서관은 엄숙하지 않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배려한, 체험하는 도서관이자 복합 문화공간이었다. 이

건축가 정기용이 어린이들을 위해 설계한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제 청소년들을 위한 기적의 도서관이 필요한 때다. 얼마 전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놀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곳에는 놀이터라던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사람들은 그곳을 기적의 놀이터라고 부른다. 과연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기적의 도서관이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차현호

건축가



계동산책 꽃 + 리빙 소품 + 커피=아멜리에 (AMÉLIE)

AMÉLIE

주소 서울 종로구 계동길 73-1
영업시간 오전 10시~밤 10시 (연중무휴)
문의 070-8834-2134



계동길에 새로운 핫스팟이 등장했다. 플라워리스트, 바리스타로 일하던 30대 초반의 세 청년이 의기투합해 '꽃집' '리빙 편집숍' '카페'를 겸한 가게를 오픈한 것. 숍의 이름은 '아멜리에(AMÉLIE)'. 프랑스 영화 <아멜리에>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을 따왔다. 사랑스럽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한 영화 <아멜리에>처럼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 꿈이란다.

커다란 통창으로 내비치는 숍 내부는 초록을 가득 머금은 식물과 알록달록한 소품들이 가득하다. 커다란 온실 속 화원 같은 느낌이다. 오픈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슬렁 동네 산책을 하다 들어오는 손님도 꽤 많다.

인기 상품은 책상 위에서 키울 수 있는 다육·선인장 화분. 모던한 디자인의 화기에 앙증맞게 자리 잡은 선인장의 가격대는 8000원에서 3만원까지 다양하

다. 큰 화분은 10만원이 훌쩍 넘는 것도 있지만, 가게 전면에 배치된 플라스틱 화분은 3000원대에도 구입할 수 있다.

가게 한쪽에는 세 명의 젊은 사장들이 직접 발로 뛰어 사들인 빈티지 주방용품과 노트, 향초, 머그컵 등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손님을 맞이한다. 화사한 컬러에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들은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가격대도 4000원에서 3만원대까지 합리적이라 선물용으로도 좋다. 앞으로 숍의 빈 벽면을 활용해 작은 전시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아티스트 백여진의 <꽃> 전시회가 진행 중인데, 전시 중인 그림과 엽서는 현장에서 바로 판매한다.

마지막으로 이 숍이 매력적인 이유는 작지만 아담한 카페 공간이 있다는 것.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잔을 손에 들고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만으로 자연스레 기분 전환이 될 것이다.

글=이희정 / 사진=이슬기



1 시원한 아이스크림 리카노와 라임, 코코넛이 어울어진 코코 라임소다. 2 아멜리에 전경. 3 현재 진행 중인 <꽃> 전시회. 4 빈티지 주방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코너.

문화책갈피

5, 6월 오픈을 앞둔 뮤지컬 대작을 소개한다.

노트르담 드 파리

홍광호, 케이윌, 문종원 등 캐스팅 공개부터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한 여인에 대한 세 남자의 엇갈린 사랑과 숙명에 대한 이야기로, 1998년 프랑스 초연부터 현재까지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들이 전 세계 프로덕션에 참여해 퀄리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일시 6월 17일~8월 21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출연 홍광호, 케이윌, 윤공주, 전나영 등

문의 1544-1555

스위니 토드

2007년 한국 초연 이후 9년 만에 다시 공연하는 뮤지컬 '스위니 토드'. 미국 뮤지컬계의 거장 스티븐 손드하임의 대표작이다. 19세기 산업혁명 초기 런던을 배경으로, 누명을 쓰고 외딴섬으로 추방당했다가 15년 만에 돌아온 이발사 '스위니 토드'가 복수극을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일시 6월 21일~10월 3일

장소 샤롯데씨어터

출연 조승우, 양종모, 옥주현, 전미도 등

문의 1588-5212

에드거 앨런 포

일찍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았던,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에드거 앨런 포'의 삶을 그린다.

일시 5월 26일~7월 24일

장소 광림아트센터 BBCH홀

출연 마이클 리, 김동완, 최재림 등

문의 1577-3363



hi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쁜 척 하지 않아 더 예쁜 뼈그우먼, 장도연



1 tvN의 <코미디 빅리그> '여자사람친구' 코너에서 장도연은 성전환을 한 여자로 출연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 남자들이 우세한 개그맨 세계에서 장도연은 박나래·이국주 등과 함께 개성있는 코미디로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개그맨에게 '웃음'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시청자의 기준도 높아졌다. 대중이 갈망하는 웃음코드는 '흔하지 않은 반전매력'이다. 본업이 개그맨인 이에게 더 척박해진 대한민국 예능 터전에서 매력적인 조건을 두루 갖춘다는 것은 축복에 가깝다. 외모, 재치, 진지함까지 갖춘 개그우먼 장도연은 요즘 무서운 속도로 예능계를 평정하고 있다.

글=박지현 <월간중앙> 기자 / 사진=신인섭 <월간중앙> 기자, tvN제공

2007년 KBS 개그우먼 공채로 첫발을 댔던 그는 174cm의 날씬한 몸매로 "개그우먼치고 예쁘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사실 장도연은 '예쁜 척'과는 거리가 멀다. 격하게(?) 망가짐을 불사한다.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성전환한 남자 캐릭터를 맡거나 '저 정도까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괴한 분장과 몸 개그로 '뼈그우먼(뻥속까지 개그우먼)'이란 수식어를 얻었다.

예능계 대세녀 자리를 굳히고 있는 장도연을 4월 서울 문래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수줍게 인사하며 들어온 첫인상과는 달리 유쾌한 입담을 과시했다. 조금조금 말을 이어가다 "하하" 하고 허스키한 웃음이 터질 때면 카페는 찰떡 찰떡 울렸다.

신동엽 권유로 개그맨 시험 응시

Q "개그우먼치고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들죠. 개그맨들 중에는 외모(?)로 승부를 거는 이도 많은데 혹시 그 수식이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감사하죠. 그런데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동기인 (박)지선이기도 그렇고 (박)성광오빠도 그렇고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낸 분이 많잖아요. 그때는 '재네들은 그냥 한마디만 해도 뽕뽕 터지는데 왜 나는 안 그러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하는 개그가 안 웃겼던 건데 그때는 외모 탓을 했어요(웃음).

Q 혹시 모델 권유를 받아본 적 없어요?

모델 권유는 아니고, 명함은 한 번 받아봤어요. 인천 모 예술극회인가, 탈 쓰고 연극하는 데였어요. 그냥 키 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웃음). 사람들이 모델 같다고 얘기하면 어쩔 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박나래씨랑 다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나래씨가 1m인 줄 알고 제가 2m인 줄 알아요. 하하.

Q 학창시절에는 어땠는데요?

개그맨은 대개 두 부류가 있어요. 학교에서 반장, 회장 하면서 행사 리드하는 부류, 아니면 동네 또라이(웃음). 저는 이도 저도 아니었어요. 임원 선거나 장기자랑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같이 어울리는 몇몇 친구만 제가 재밌다는 걸 아는 정도?

Q 그런데 어떻게 개그우먼을 할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신동엽 선생님의 '토크 18금'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바이벌로 살아남으면 1등에게 300만원의 상금을 준다고 해서 지원해 봤죠. 그때 함께 출연한 분이 허경환씨예요. 동엽 선생님이 '내가 말은 잘하는 것 같다. 개그맨 시험 한번 보지 않을까?'라고 권유해 주셨고, 시험 봐서 붙었죠.

시청자 반응이 달라진 건 한순간이었다

Q 언제부터 인기를 실감하게 됐나요?

최근 1년 정도 방송에서 많이 불러주면서? 많은 시청자가 제가 데뷔 후 열심히 안 했거나 쉼 줄 아는데 저는 개그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쉬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해온 일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개그가 나아졌지만 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반응이 달라진 건 정말 한순간이었던 거 같아요. 예전엔 이마에 눈 붙이고 외계인 흉내도 냈어요. 그때는 그냥 '열심히 사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재밌다'고 반응해 주니까 신기해요.

Q 오랜 시간을 무명으로 견뎌냈는데 힘들지는 않았어요?

딱히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지만,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내 안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술도 늘고(웃음).

Q 애주가라고 들었어요.

아, 술 좋아하죠. 혼자서는 캔맥주를 잘 마셔요. 특히 수입맥주 마시는 여성에 대한 허세가 있나 봐요. 밤 늦게 집에 들어와서 호가든 한 캔 마시고 확 구기고 자는 이런 거요(웃음). 그런데 마시다 보니 방에 널브러지고 무슨 알코올 중독 패턴 같더라고요. 하하.

개그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도 그가 빛을 본 계기가 됐다. 남자들이 우세한 개그맨 세계에서 장도연은 박나래, 이국주, 김숙 등과 함께 개성 있는 여성 코미디언으로 예능계에 새로운 바람을 넣는다. 특히 동갑내기 박나래는 <개그 콘서트> 선



기괴한 분장으로 웃음을 주는 장도연·박나래.

후배 사이로 10년간의 오랜 무명생활을 함께 이겨낸 콧바다.

Q 개그계도 남초 사회인데 요즘 여풍이 분다는 말이 있더군요.

정말 (듣기) 좋아요. 김숙 선생님을 비롯해 이국주·박나래씨와 함께 개그우먼계를 이끈다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게. 특히 잘하는 동료 둘과 이렇게 묶여 있어서 영광이죠. 예전엔 내가 배우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적인 개그보다 공부하는 개그맨 되고 싶어

Q 3개월 만에 토익 930점이라면서요?

아, 정말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공인점수는 903점이에요. 930점은 모의고사 점수예요. 경희대 시각디자인학과에 편입하려고 바짝 공부한 거예요. 이거 누가 증명하라고 할까 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꼭 정정해 주세요. 903점이 공인점수예요. 930은 대방동 모의고사 점수(웃음).

Q 최근에는 하고 싶은 공부가 있나요?

어학공부요. 안 할수록 자주 잊어버려요. 예전엔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근철 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며 공부했어요. 그런데 워낙 술 먹는 게 버릇이 되니까 새벽 여섯 시 '굿모닝 에브리원!' 하고 일어나 정신차려 보면 '내일 만나요!'라는 인사만 듣게 됐죠(웃음).

Q 몸매 관리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과 안주는 살 많이 찌는데.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분식 좋아해요. 떡볶이, 순대, 거기에 맥주. 어떤 음식이건 맥주를 곁들이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살은 아버지 체질 닮아서 그런지 잘 안 찌요. 운동을 따로 하는 건 아닌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요즘은 밤에 맥주 입에 때려붓고(털어 넣고)나면, 후회되잖아요. 음주를 많이 하면 피부에 수분감이 모자라니까 병적으로 물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배추즙, 포도즙, 호박즙 등 각종 즙을 마시는 거예요. 파프리카, 샐러드 이런 거 먹고. 정말 부질없는 짓이죠(웃음).

Q 앞으로의 계획은요?

개그우먼으로서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엔 '웃기면 되고 한 주 한 주 잘하면 되지' 그랬는데 이제는 후배도 많이 생기니까 귀감도 되고,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집도 가고요(웃음).



미쳐야 미친다(불광불급, 不狂不及). 장도연은 우리가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시간마저 꾸준히 개그에 미쳐 있었다.

문화칼럼

마음을 표현하세요 내가족에게 선물하면 좋은 책

아빠도 읽고 아이도 읽고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

제목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는 책. 유아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와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다. “네 인생이 너에게 최고의 놀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강병용 소설가와 그의 딸 강태희양이 함께 쓴 책으로 서울, 모스크바, 류블랴나 등 세 도시에 살며 겪은 이야기를 담았다.

짧지만 기라기 생활을 한 소설가 아빠 강병용은 세상에 둘도 없는 딸바보. 하지만 그에게도 딸에게 ‘아저씨’ 소리를 들었던 슬픈 과거가 있다. 지금은 “아빠면 충분해”라는 고백을 듣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 이들 부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끈끈한 부녀 사이가 됐을까. “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 “놀아라”라는 잔소리(?)를 더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책장을 펼치면 펼칠수록, ‘이렇게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책. 아빠 독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에세이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책 『가족심리백과』

내 가족의 심리적 고민을 알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읽으면 좋을 책. ‘백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부터 우울증, 불안부터 공황장애, 자존감 문제부터 ADHD까지 전 생애를 좌우하는 모든 심리 문제를 집대성했다.

정신과 의사 10명이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담자들의 다양한 고민거리를 생애 단계별로 나누어 구성한 책으로, 살면서 꼭 마주치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을 다뤘다. 884쪽에 이르는 이 두툽한 책은 저자의 말처럼 “나 자신에게 괴로운 고민이 생겼을 때 혹은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펼쳐 보면 좋을 책이다. 즉답을 얻거나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문제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음건강 필독서다.

조카를 선물해준 언니, 누나에게 『천일의 눈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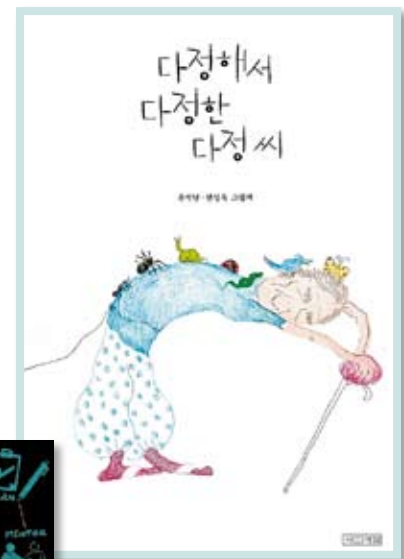
육아로 고민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 책을 선물하면 좋다. 정신분석가 이승옥이 펴낸 책으로 ‘0~3세 아이를 위한 마음 육아’를 다뤘다. 저자는 20년 동안 정신분석가로 훈련 받고 일하면서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던 중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 바로 성장기 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점. 이들은 부모와 전혀 관계 없는 일들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분석하다 보면 부모에 대한 애증과 원망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부모를 사랑하되 부모의 ‘육망’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아이로 키우기 위해 저자가 제안하는 육아의 핵심은 세 가지다. “따뜻한 응시와 안정적인 수용, 엄마의 품.” 책이 출간된 후 ‘이 책을 더 일찍 읽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하는 부모 독자를 여럿 접했다. 예쁜 조카가 더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꼭 눈여겨보면 좋을 책이다.

아이도 보고 엄마도 보고 『이상한 엄마』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의 신작이다. 그간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 독자들에게 미안함이 컸다. 전형적으로 너무 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는 아쉬운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보다 현실적인 가족의 모습을 담고 싶어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이상한 엄마』를 펴냈다.

책은 주인공 ‘호호’가 야과 학교에서 조퇴하면서 시작된다. 직장맘인 호호엄마는 회사 일 때문에 호호에게 바로 달려갈 수 없는 상황. 결국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범상치 않은 얼굴의 ‘선녀 엄마’다. 과연 선녀 엄마는 호호를 잘 보살필 수 있을까? 백희나 작가의 작품을 처음 보는 독자라면, 이게 사진인가, 컴퓨터 그래픽인가 헷갈릴 수 있다. 작가는 책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소품을 직접 만들어 사진을 찍었다. 그림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입체감이 어린이 독자의 시선을 끈다. 엄마의 마음은 물론, 아이의 마음도 읽는 진귀한 그림책이다.



힘든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에게 『훌륭한 관리자의 평범한 습관들』

간부로 승진한 아빠·엄마가 적당계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봤다면 책상 위에 이 책을 살짝 올려놓으면 어떨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장사의 시대』, 『하버드 경영학 수업』의 저자 필립 델브스 브러턴이 우리 시대 훌륭한 관리자들의 면모와 관리의 기술을 소개했다.

저자는 세계적인 경영 구루인 마이클 포터, 워런 버핏의 놀라운 통찰이 담긴 조언들과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쌓아온 단단한 이론, 다양한 취재 경험에서 얻은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훌륭한 관리자가 갖고 있는 숨겨진 노하우를 이야기한다.

책은 ‘관리의 기술’을 여섯 갈래(자기 관리, 직원 관리, 프로세스 관리, 숫자 관리, 변화 관리, 전략 관리)로 나눠 현장감 넘치는 조언과 탄탄한 이론을 전달한다. 저널리스트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사례들은 읽는 이의 재미를 더한다.

할머니가 된 엄마에게 『다정해서 다정한 다정씨』

부모님께서는 책 선물을 잘해야 한다. 눈이 점점해서 TV 보는 것도 힘든데, 책을 읽으라고 하면 속으로 화가 난다는 부모님이 많다. 하여 그림책만

큼 좋은 선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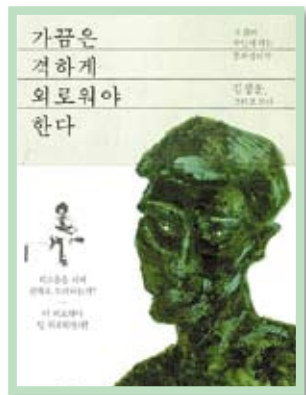
『다정해서 다정한 다정씨』는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이다. 설치와 조각, 회화를 넘나드는 서양화가 윤석남의 드로잉을 그림책 작가 한성옥이 아트디렉터를 맡아 완성했다. 두 작가가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감정은 ‘모성’이었다. 한없이 다정해서 때로는 미안하고 안쓰러우며 아득한 ‘모성’. 가장 그리고 싶은 존재였던 ‘어머니’를 그리면서 나이 마흔에 화가가 된 윤석남은 간결한 드로잉과 차분한 필치로 독자들의 마음에 말간 돌을 던진다.

여자라면, 엄마라면 이 그림책을 읽다가 후드득 흐르는 눈물과 맞닥뜨릴 수 있다. 엄마의 생을 위로하고 싶다면, 응원하고 싶다면 선물하면 좋을 책. 소장 가치가 분명히 있는, 받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책이다.

중년이 된 나에게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괜찮은 책 한 권을 발견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6년 전, ‘영원히 철들지 않는 남자들’의 문화심리학’을 말했던 김정운 저자가 2016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문화심리학’을 권한다. 4년간의 일본 생활을 마무리하며 내놓은 책이 바로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외로워 미치겠다는 사람들에게 ‘격하게’ 외로워하라고, 사람도 좀 적게 만나고, 바쁠수록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자고 조언한다. “왜?”라고 묻는 이들에게는 “외로움이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김정운 교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공부하면 나이가 드는 게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책. 스스로가 너무 타인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책을 보자. 스스로에게 선물하면 좋을 책이다.



휴양지 사모아 알면 반할걸요?

지구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섬

낮선 나라, 사모아의 위치부터 알아 보자. 사모아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북동쪽으로 약 4000km 떨어져 있다. 날짜변경선에 인접해 있어 지구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다. 서사모아는 독일, 뉴질랜드 식민지를 거쳐 1962년에 독립을 쟁취했지만, 아메리칸 사모아는 미국령을 택했다. 서사모아는 하와이·뉴질랜드 등 폴리네시아 문화권에서 부족 간 관계가 가장 끈끈하기로 유명하다. 화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파 사모아 (Fa’a Samoa)’ 정신 때문. 웬만한 범죄는 부족 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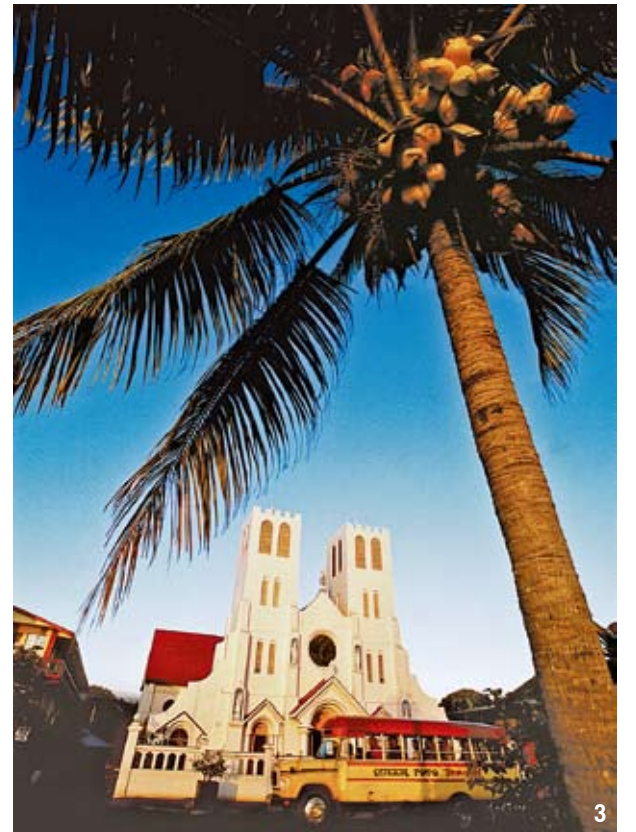
해결하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도 미미하다고 한다. 독일, 뉴질랜드 외에는 바깥 세계와 교역이 많지 않았던 터라 전통문화도 잘 보존돼 있다.

예로부터 많은 예술가는 사모아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다. 소설가 서머싯 몸은 타히티를 배경으로 한 소설 『달과 6펜스』뿐 아니라 사모아에서 영감을 받아 단편소설 『레드』를 썼다. 조슈아 로건 감독은 고전 뮤지컬 <남태평양(South Pacific)>의 모티브를 사모아에서 얻었다고 한다. 『지킬 앤드 하이드』 『보물섬』 저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생의 마지막 6년을 사모아에서 보냈다.



2

1 사모아의 상징인 천연 수영장 ‘토 수아 오션 트렌치’.
2 지구 최고의 비경을 높이 쳐 삼아 노는 사모아 아이들.
3 사모아의 수도 아피아. 낮은 버스가 정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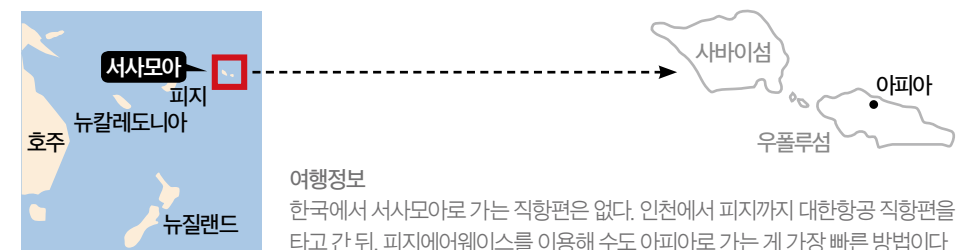


3

신비한 빛깔의 천연수영장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사모아는 온갖 신비한 비경을 품고 있다. 가장 유명한 건 천연 수영장 ‘토 수아 오션 트렌치(To Sua Ocean Trench)’다. 무성한 수풀 속 분화구에 에메랄드빛 물이 고여 있다.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사진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신비한 사진 한 장에 반해 사모아로 떠난다. 최근 가수 저스틴 비버가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바이(Savaii)섬 남동쪽에 있는 ‘아푸 아아우 폭포(Afu A’au Falls)’도 유명하다. 물이 맑고 깊어 짜릿한 다이빙에 도전할 수 있다. 사바이섬, 노스 코스트 로드(North Coast Rd)를 따라 북동쪽 해안을 달리다 보면 검은 현무암 벌판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는 살레아울라 용암평원(Saleaula Lava Fields)을 만날 수 있다. 화산 지대라 하면 척박할 것 같지만 갖가지 꽃과 나무,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생명의 땅이다. 20세기 초, 화산 폭발 때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은 ‘기적의 교회’ ‘기적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



여행정보
한국에서 서사모아로 가는 직항편은 없다. 인천에서 피지까지 대한항공 직항편을 타고 간 뒤, 피지에어웨이를 이용해 수도 아피아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